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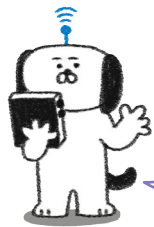
한국 미술의 숨결

- 1 한국 전통 미술의 시대적 맥락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2 주요 작품의 내용과 형식을 분석하고 미술 용어로 설명할 수 있다.
- 3 삶과 연결된 한국 전통 미술의 가치를 발견하여 공동체 문화에 기여할 수 있다.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한 우리의 선조는 자연 친화적 미의식을 바탕으로 소박하면서도 기품이 넘치는 전통 미술을 발전시켰다. 아시아 문화 교류에 이바지하며 독창적인 미술을 꽃피운 선조의 작품은 고유한 미감과 조형성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지혜와 철학적 사상을 담았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 미술을 감상하며 우리 삶에 스며들어 있는 전통의 숨결을 느껴 보자.

선사 시대 실용 도구에서 염원을 담은 미술로

선사 시대의 유적과 유물은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구석기 시대의 뎀석기인 주먹 도끼는 채집과 수렵의 도구였고, 신석기 시대의 빗살무늬 토기는 농경 생활에서 수확한 음식을 저장하는 용기였다. 신석기 시대 말부터 청동기 시대에 걸쳐 새겨진 암각화에는 고래, 거북, 사슴, 멧돼지 등 각종 동물과 사냥하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어 풍요로운 포획을 염원했음을 알 수 있다. 계급이 발생하고 초기 부족 국가가 출현한 청동기 시대에 의례용으로 사용된 청동 거울, 농경문 청동기 등은 뛰어난 금속 제작 기술을 보여 준다. 특히 청동기 시대의 거석 무덤인 고인돌은 전 세계 고인돌의 절반 가까이가 한반도에 분포할 정도로 많은 수가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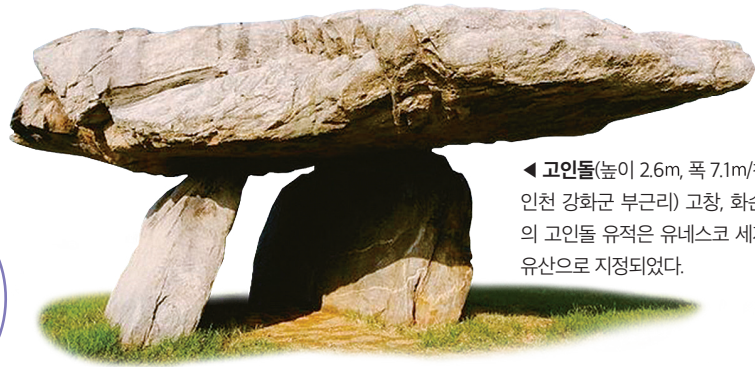
문자로 기록된 역사 시대 이전의 시대를 선사 시대라고 합니다. 인류 역사의 약 95% 이상을 차지하는 긴 시간이지요. 문자가 없었던 이 시기에 인간은 그림으로 기록을 남겼습니다.



▲ **잔무늬 거울**(동합금/지름 16.2cm/ 초기 철기 시대) 청동 거울의 뒷면에는 미세한 선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다.



▲ **빗살무늬 토기**(높이 38.1cm/신석기, 기원전 3000년경) 빗살 문양은 장식적인 요소의 출현을 보여 준다.



◀ **고인돌**(높이 2.6m, 폭 7.1m/청동기/ 인천 강화군 부근리) 고창, 화순, 강화의 고인돌 유적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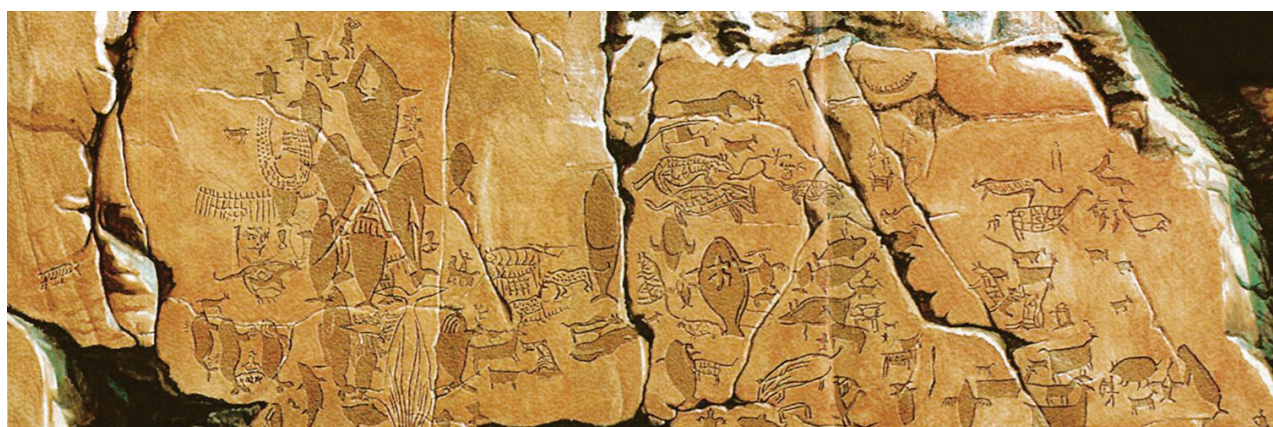


▲ **농경무늬 청동기**(폭 12.8cm/초기 철기 시대) 농경과 관련한 제사를 지낼 때 사용했던 의식용 도구로 추정된다.



◀ **농경무늬 청동기의 세부** 머리에 긴 깃털을 꽂은 채 따벼로 밭을 일구는 남자와 그 아래에 괭이를 치켜든 인물이 보인다.

▶ **반구대 암각화**(부분/폭 10m/신석기 말~청동기 초/울산 울주군 대곡리)



삼국 시대 개성 넘치는 고대 왕국의 미술

기원 원년을 전후로 건국한 고구려, 백제, 신라는 각기 다른 독특한 미술 문화를 발전시켰다. 삼국 시대에 우리 민족은 조화로운 미의식과 순수한 자연미를 드러내는 한편 4세기 말 중국에서 불교를 받아들여 독자적인 불교 미술을 전개하였다.



무용총의 수렵도가 역동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소형 요소와 원리로 설명해 보아요.

고구려 기원전 37~기원후 668

북방의 넓은 영토를 개척한 고구려는 역동적 생동감과 진취적 기상이 넘치는 미술을 남겼다. 무용총, 강서 대묘와 같은 옛 무덤에는 무덤 주인의 초상화뿐만 아니라 고구려인의 일상생활이나 수렵 장면이 생생하게 묘사되었다. 삼국 중 가장 먼저 불교를 수용한 고구려는 강인하면서도 경쾌한 형식의 불상을 제작하였다.



▲ 무용총 수렵도(고분 벽화/고구려 5세기/중국 지린성) 생동감이 넘치는 역동적 구성은 중국 회화의 영향을 벗어나 고구려의 독자적 면모를 보여 준다.



▲ 연가 칠년명 금동 여래 입상(금동/전체 높이 16.2cm, 무게 11.8kg/고구려 539년) 광배 뒷면에 명문이 있어 조성 연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중요한 금동 불상이다. 좌우로 힘차게 뻗친 옷자락에서 고구려 특유의 당당함과 발랄함이 느껴진다.

백제 기원전 18~기원후 660

중국 남조와 교류하며 고구려 미술을 수용한 백제는 낮은 산과 넓은 평야를 무대로 온화하고 부드러운 미술 문화를 발전시켰다. 특히 서산 마애 삼존 불상은 백제 특유의 부드러운 조형미를 담았으며 금동 대향로는 탁월한 공예 기술을 보여 준다.



▲ 서산 마애 삼존 불상(높이 280cm/7세기/충남 서산) 인자하게 웃는 본존불은 '백제의 미소'로 널리 알려져 있다.



▲ 백제 금동 대향로(금동/높이 61.8cm, 무게 11.8kg/백제 6~7세기) 향로의 몸체는 불교의 연꽃으로, 뚜껑은 도교의 선산(仙山)으로 장식되어 있어 불교와 도교의 융합을 보여 준다. 봉황이 내려앉은 선산의 꼭대기에는 약기를 연주하는 다섯 명의 악사를 묘사하였다.

신라 기원전 57~기원후 676

지리적 여건 때문에 외래문화의 유입이 늦었던 신라는 소박한 토우와 토기, 화려한 금속 공예와 정교한 불상 조각 등 다양하면서도 독창적인 미술을 발전시켰다. 신라를 비롯한 삼국 시대의 미술은 이웃 나라 일본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 기마 인물모양 토기(높이 26.8cm, 25.4cm/7세기/신라 5~6세기) 경주 금령총에서 출토된 한 쌍의 '주자' 토기이다. 말을 탄 주인과 하인의 모습이 라고 추정한다. 인물의 의복과 각종 말갖춤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신라인의 생활상을 알려 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 향남대총 금관(높이 27.5cm/신라 4~5세기)

▶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금동/높이 93.5cm/삼국 7세기 전반) 반가 사유란 한쪽 다리를 다른 쪽 무릎에 얹고 생각에 잠긴 자세를 일컫는 말이다. 인간의 생로병사를 고민하며 명상에 잠긴 석가모니 태자의 모습에서 유래하였다. 이 불상은 출토지가 불확실하여 삼국 중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졌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신라의 불상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반가 사유상이 신라의 불상으로 추정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76쪽을 찾아보아요!

통일 신라(676~935) 불교 미술의 황금기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의 문화를 흡수하고 중국 당나라뿐만 아니라 멀리 인도, 서역과 교류하며 국제적이면서도 독자적인 미술을 발전시켰다. 왕실과 귀족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불교문화의 황금기를 이룩한 통일 신라는 세련되고 원숙한 미의식이 담긴 불교 미술을 남겼다. 특히 전성기였던 8세기 경주 지역에 세워진 불국사와 석굴암, 성덕 대왕 신종과 불교 조각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불교 미술이다. 7세기 후반에서 10세기 전반에 이르는 통일 신라 시대는 남쪽의 통일 신라와 북쪽의 발해가 함께 존재한 시기였으므로 발해사를 한국사에 포함하여 '남북국 시대'라고 부르기도 한다.



▲ 석굴암 본존상(화강암/대좌 포함 높이 326cm / 751~774년) 석굴암은 과학, 예술, 종교가 하나로 융합된 인공 석굴이다. 돛 천장의 주실에 안치된 본존상은 부처가 깨달음을 얻은 순간을 승고하고 장엄하게 형상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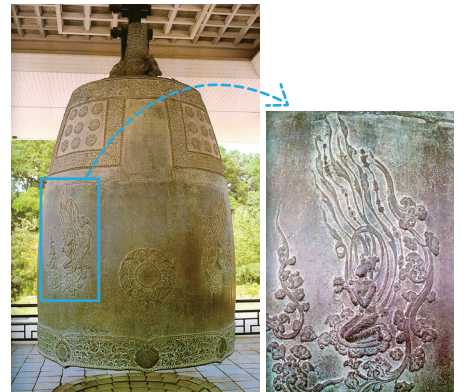


▲ 경주 불국사(751~774년) 재상이었던 김대성이 발원하여 지은 사찰이다. 이상적 세계인 불국(佛國)을 실현하고자 했던 신라인의 소망이 반영되어 있다.



▲ 경주 불국사 삼층 석탑(석가탑)과 다보탑(높이 각 10.75m, 10.29m/8세기 중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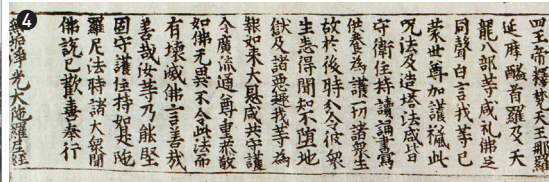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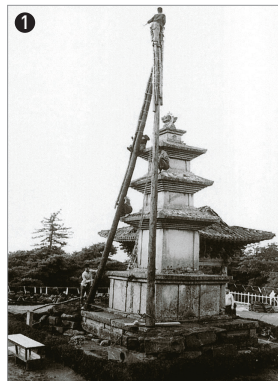
석가탑과 다보탑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



▲ 성덕 대왕 신종(청동/높이 3.66m, 입지름 2.27m, 두께 11~25cm/771년) 빼어난 조형미와 함께 아름다운 종소리를 갖춘 이 신종은 섬세한 표현이 가능한 밀랍 주조법으로 제작되었다. 악기를 연주하는 주악 비천상이 새겨진 다른 종들과 달리 이 신종에는 공양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공양 비천상이 섬세한 돌을새김으로 표현되었다.

불국사의 대웅전을 향해 서서 보면 서쪽의 석가탑과 동쪽의 다보탑이 서로 마주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찰에 세워지는 두 탑은 같은 형태를 지니는데, 불국사는 특이하게도 두 탑의 형태가 매우 다릅니다. 안경감과 상승감이 완벽하게 조화된 삼층 석탑 형식의 석가탑은 「법화경」을 설법하는 석가여래를 나타내고, 정교한 형태의 이형 석탑 형식을 갖춘 다보탑은 석가의 설법이 진리임을 증명하며 땅에서 솟아오른 다보여래를 상징합니다. 이처럼 두 탑은 현재의 부처인 석가와 과거의 부처인 다보가 한자리에 앉았다는 불경의 내용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 불국사 삼층 석탑의 해체 수리 작업 ① 중 발견된 사리함 ②과 무구 정광 대다라니경 두루마리 인쇄본 ③, ④. 불국사가 창건된 751년에 봉안된 다라니경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다. 이것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770년경에 간행된 일본의 백만탑 다라니경이 가장 오래된 인쇄물로 알려져 있었다.



알고 가기 발해의 미술

고구려의 유민 대조영이 옛 고구려 영토에 세운 발해는 고구려 문화를 기반으로 당나라의 불교문화를 수용하여 뛰어난 수준의 미술 문화를 전개하였다. 고구려 전통을 이어받은 무덤의 벽화 외에도 힘이 넘치는 석조상과 기와 등이 남아 있다.

▶ 치미(기와/높이 91cm/8~9세기) 치미는 고대 목조 건축에서 지붕의 용마루 양쪽 끝에 제앙을 막는 의미로 부착했던 장식 기와이다. 발해의 수도였던 상경의 절터에서 출토되었다.



▲ 용머리 석조상(화강암/높이 37cm/8~9세기) 계단을 장식한 돌조각이다. 상상의 동물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였다.

고려(918~1392) 귀족적인 미술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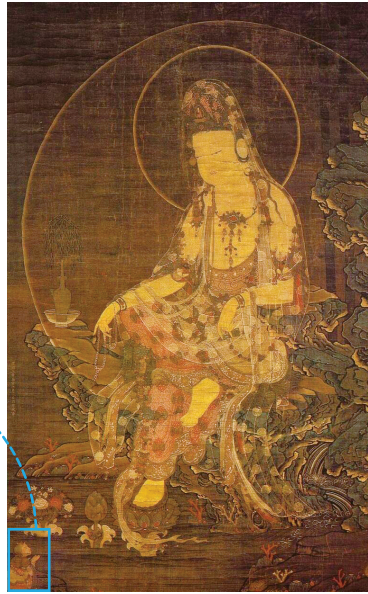
고려는 통일 신라 말 개성 지방의 호족이었던 왕건이 후삼국으로 분열된 한반도를 통일하여 세운 왕조이다. 불교를 장려한 고려 시대에는 회화·조각·공예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화려하고 귀족적인 불교 미술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10세기에서 12세기 중반에 이르는 전기에는 의욕과 기백이 넘치는 불교 미술과 함께 유교의 영향을 받은 세련된 귀족 문화가 발전하였다. 12세기에 절정에 이른 고려의 청자는 은은한 비색 청자와 섬세한 상감 청자로 세계 최고 수준의 도자 예술을 선보였다. 한편 1170년 무신 정변 이후의 고려 후기에는 불교 회화와 사찰 건축이 융성하였다. 특히 정교하고 섬세한 묘사가 돋보이는 고려 불화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 청자 투각 칠보 무늬 향로(흙/높이 15.3cm/고려) 투각된 구형의 뚜껑, 섬세한 연꽃 모양의 몸통, 토끼 세 마리를 배치한 받침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향로로 고려 시대의 탁월한 도자 공예의 수준을 보여 준다.



▶ 서구방(고려/생몰년 미상) 수월관음도(비단에 채색/165.5×101.5cm/1323년) 관음보살이 연꽃가 바위에 반가 자세로 앉아 구도하는 선재동자를 맞이하는 모습이다.



▲ 개성 경천사지 10층 석탑(대리석/높이 13.5m/1348년) 우리나라에서는 드문 대리석 탑이다. 고려 후기 원나라 양식의 영향을 받은 화려한 장식을 보여 준다.



고려의 화려한 미술은 어떤 사회적 배경에서 출현했을까?



고려 시대에는 과거 제도가 있긴 했지만 음서 제도와 공음전시과를 중시했기 때문에 관료 사회라기보다는 귀족 사회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이런 사회적 배경에서 성장한 전기의 문벌 귀족과 후기의 권문세족은 화려하고 귀족적인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 금동 관음보살 좌상(금동/높이 38.5cm/13~14세기) 화려한 보관과 장신구를 걸친 고려 후기의 보살 좌상이다. 라마교 불상의 영향을 받은 관능미와 이국적인 특징이 엿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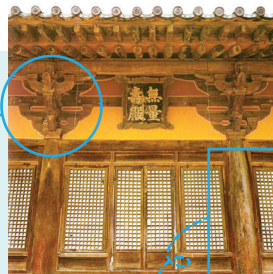
▶ 한송사지 석조 보살 좌상(대리석/높이 92.4cm/10세기) 강원도 강릉의 한송사 절터에서 발견된 고려 초기의 불상이다. 강원도 지역 불상의 특징인 부드럽고 단아한 조형감을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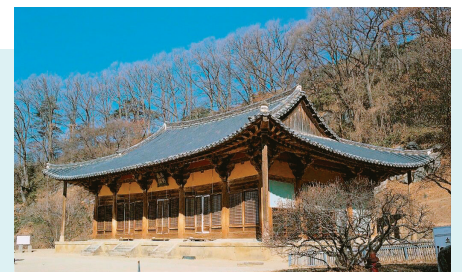
알고 가기 전통 건축의 아름다움과 지혜

우리 선조는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건축의 고유한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전통 목조 건축을 발전시켰다. 고려 시대에는 선종 불교가 성행하면서 산지 가람이 많이 세워졌다. 그중 부석사 무량수전은 앞면 5칸, 옆면 3칸에 팔작지붕을 한 웅장한 규모를 자랑한다. 지붕 처마를 받친 주심포 양식은 간결하고 단아한 구조미를 보여 주고, 시각적 안정감을 주는 배흘림기둥은 여유 있는 곡선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

주심포 양식: 기둥머리 위에만 공포를 배치해 단정한 느낌을 준다.



배흘림기둥: 기둥의 중심부가 상하부보다 두꺼워 시각적으로 안정감을 준다.



▲ 부석사 무량수전(13세기) 경북 영주시 부석면 소재



맞배지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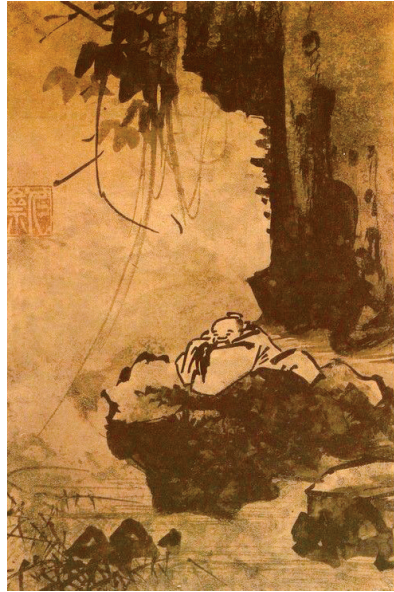
우진각 지붕

팔작지붕

조선(1392~1910) 소박하고 순수한 미술 문화

조선은 국왕과 양반 관료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를 갖춘 왕조 국가였다. 개국 이래 조선은 문인 사대부의 유교적인 통치 이념을 바탕으로 단아하면서도 실용적인 문화를 발전시켰다. 고려 시대의 도화원을 계승한 도화서를 설치하여 왕실 회화를 총괄하게 함으로써 회화와 서예가 수준 높게 발전하였으며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하였다. 분청사기와 백자로 대표되는 조선의 도자는 순수하고 소박한 아름다움이 돋보이며 다양한 건축 형식은 조형미와 과학적인 건축 기술을 보여 준다.

조선 시대 미술 작품을 보면
내 마음까지 편안해져.



▲ 강희안(조선/1419~1464) 고사관수도(비단에 수묵 담채/23.4×15.7cm/15세기)



▲ 신사임당(조선/1504~1551) 초충도(종이에 수묵/32.8×28cm/16세기 초)



▲ 백자 청화 송죽무늬 향아리 (흙/높이 48.7cm/1489년)

조선 전기 1392~1550

왕실을 중심으로 한 화원 화가와 사대부 문인 화가들이 북송의 이과파 화풍과 명의 절파 화풍을 수용하여 독자적인 회화 양식을 발전시켰다. 안견의 몽유도원도를 비롯하여 강희안의 고사관수도와 사임당 신씨의 초충도 등이 대표적이다. 또 조선 전기에는 소박한 분청사기, 청아한 순백자, 화려한 청화백자 등 도자 예술이 발전하여 높은 가치를 지닌 도자를 생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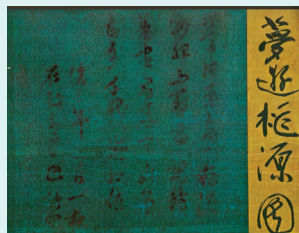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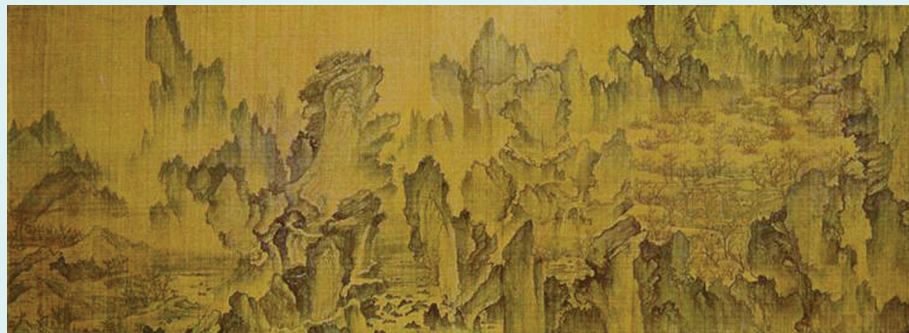
▶ 경북궁 근정전(1395년 창건/1867년 재건) 경북궁의 중심 건물. '부지런하게 정치하라'는 유교 정치의 이념을 담아 세워졌다.



▶ 분청사기 박지 모란무늬 장군(흙/폭 34.5cm/조선 전기) 백토로 분장한 후 표면에 모란무늬를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굽어내어 장식하였다.



알고 가기 시서화로 실현된 꿈속의 이상향



“ 이 세상 어느 곳을 도원으로 꿈꾸었나. 은자들의 옷차림새가 아직도 눈에 선하거늘, 그림으로 그려 놓고 보니 참으로 좋구나. 천년을 이대로 전하여 볼 직하지 않은가. ”

◀ 안평 대군이 쓴 제침

▲ 안견(조선/1418?~1452?) 몽유도원도(비단에 수묵 담채/38.7×106.5cm/1447년)

몽유도원도는 예술에 조예가 깊었던 안평 대군(이용, 1418~1453)이 꿈에 문인들과 도원을 거닐며 본 광경을 안견에게 그리게 한 작품이다. 화면 왼쪽 아래의 현실 세계에서 출발하여 중간의 동굴과 산길을 거쳐 복사꽃이 만발한 오른쪽 무릉도원에 다다른 환상적인 산수가 점층적으로 펼쳐지는 구성이다. 안평 대군은 작품의 기문에 꿈 내용을 직접 썼고 박팽년, 성삼문 등을 포함한 학자 21명에게 찬시를 쓰도록 했다. 그림과 시문을 모두 합하면 총길이가 20m에 달하는 몽유도원도는 조선 전기 최고의 시, 서, 화를 집약한 걸작이다. 현재 두 권의 두루마리 형태로 표구되어 일본 덴리 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조선 중기 1550~1700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이 일어나며 정치적으로 불안한 시기였지만 사대부를 중심으로 수목화가 발달하였다. 특히 불안정한 정치 상황에서 세속을 떠나 자연에 은거하는 어부, 탁족 등의 주제나 불교와 도교 인물을 그린 도석 인물화가 성행하였다. 지방의 사람들이 속세를 떠나 후진을 양성하는 서원 건축이 활발해졌다.



▲ **도산 서원**(1575년/경북 안동시 도산면) 퇴계 이황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는 서원이다. 자연과 유교 건축이 어우러진 장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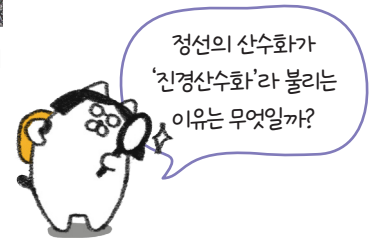
▲ **김명국**(약 1600~1663 이후) **달마도**(종이에 수묵/83×57cm/1643년경)



▲ **이명옥**(조선/17세기) **어초문답도**(비단에 담채/172.7×94.2cm/17세기 후반)



▲ **법주사 팔상전**(목조/높이 21.6m/1626년/충북 보은군)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유일한 5층 목탑. 3층까지 내부가 뚫려 있는 통층식 구조이다.



조선 후기 1700~1850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면서 경세치용의 실학사상과 자주 의식이 드러나는 미술 문화가 융성하였다. 한국의 독자적 화풍을 성취한 시기로 우리나라 산천의 진수를 담은 진경산수화와 서민의 생활을 그린 풍속화가 등장하였다. 또 사실 묘사를 중시한 초상화와 서민의 민화가 크게 유행하였으며 과학 지식과 건축 기술을 집약한 성곽 건축인 수원 화성을 축조하였다.



▲ **김홍도**(조선/1745~1806?) **기와이기**(종이에 수묵 담채/28×24cm/18세기)



▲ **신윤복**(조선/1758~?) **단오풍정**(종이에 채색/28.3×35.2cm/18세기 말~19세기 초)



▲ **까치와 호랑이**(종이에 채색/157×91cm/19세기) 까치와 호랑이는 민화의 대표 소재로 꼽힌다. 다양한 색채와 해학적 표현에 길상과 벽사의 의미를 담았다.



▲ **정선**(조선/1676~1759) **만폭동도**(비단에 수묵/33×22cm/18세기 전반)



▼ **수원 화성**(조선/1896년/경기 수원시 팔달구) 정조의 명에 따라 건설된 신도시이자 성곽이다. 조선 시대 최고의 실학자인 정약용이 설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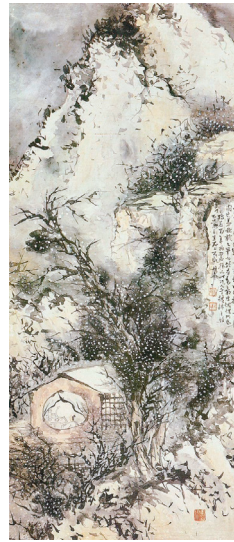
◀ **백자 달항아리**(점토/높이 41cm/18세기) 17세기 후반에 나타나 18세기 중엽까지 유행한 백자 대호이다. 보름달처럼 둥글고 원만하게 생겨 1950년대에 달항아리라는 이름을 얻었다. 순백의 빛깔과 담박한 조형미를 지닌 달항아리는 중국과 일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도자이다. 물레에서 한 번에 성형할 수 없는 대형 항아리여서 상반부와 하반부를 따로 만들어 접합하는 방식으로 제작하였다.

조선 말기 1850~1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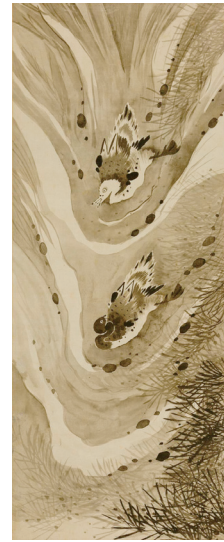
세도 정치의 폐해와 외세의 침입 등 나라 안팎의 혼란 속에서 고종은 1897년 대한 제국(1897~1910)을 선포하며 근대적 개혁을 시도했다. 근대 화단으로 연결되는 전환기였던 이 시기에는 전통적인 문인화풍과 개성 있는 새로운 화풍이 공존하였다. 특히 김정희의 남종화가 크게 유행하면서 문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새롭게 유입된 서양화법을 수용한 이색적인 화풍이 등장하였다.



▲ **김정희**(조선/1786~1856) **세한도**(종이에 수묵/23×69.2cm/1844년) 제주도에 유배된 추사 김정희가 자신을 잊지 않고 귀한 책을 보내 온 제자 이상직에게 그려 준 그림이다. '세한'은 '추운 겨울이 되어서야 소나무와 측백나무가 오랫동안 시들지 않음을 안다는 논어의 구절을 줄인 말이다. 김정희는 혹독한 고난을 겪은 시절에도 변치 않는 지조와 신의를 문인의 기개 넘치는 필치로 표현하였다.



▲ **조희룡**(조선/1789~1866) **매하서옥도**(종이에 수묵 담채/106×45cm/19세기)



▲ **홍세설**(조선/1832~1884) **유압도**(비단에 수묵/119.5×47.8cm/19세기 후반)



▲ **사방탁자**(나무/132.8×36.4×34cm/19세기)

근대 서양 문화의 도입과 전통 미술의 계승과 변화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1910~1945)와 한국 전쟁(1950~1953)이 이어지면서 시련을 겪었으나 이후 산업화와 근대화에 박차를 가하며 국가적 성장을 준비하였다. 근대 미술도 서구 문화를 수용하여 변화를 맞이했다. 당시 미술가들은 전통 수묵화에 변화를 주고 유화 기법을 도입하여 근대 회화를 제작하였다. 또 서구 근대 조각 양식을 받아들여 사실적인 전신상을 조각하였고, 르네상스와 고딕 양식을 활용하여 덕수궁 석조전, 명동 성당 등을 건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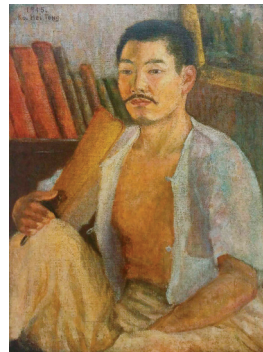
이 수묵화가 전통 산수화와 다른점은?



전통적인 산수화에 있는 제문이나 발문이 없어서 서화 개념에서 벗어났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산천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였으므로 근대의 풍경화 성격이 강합니다.



▲ **이상범**(한국/1897~1972) **초동**(종이에 수묵 담채/153×185cm/192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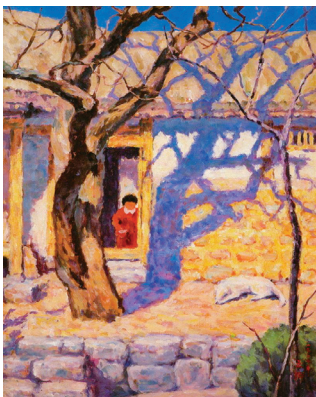
▲ **고희동**(한국/1886~1965) **부채를 든 자화상**(캔버스에 유채/61×46cm/1915년) 고희동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화가이다.



▲ **박수근**(한국/1914~1965) **길가에서(아기 업은 소녀)**(캔버스에 유채/107.5×53cm/1954년)



▶ **김경승**(한국/1915~1992) **소년 입상**(청동/149×38×41cm/1943년 석고상 제작/1971년 청동상 주조 제작)



◀ **오지호**(한국/1905~1982) **남향집**(캔버스에 유채/79×64cm/1939년) 해방 전까지 작가의 가족이 살았던 개성의 초기집을 그린 작품이다. 붉은 옷을 입은 둘째 딸 금희가 문을 나서는 모습을 담았다. 고목의 보라색 그림자와 대비되는 밝고 따사로운 봄 햇살에서 한국적 정취를 느낄 수 있다. 오지호는 인상주의를 우리나라의 풍토에 맞게 토착화한 대표 작가이다.

◀ **이중섭**(한국/1916~1956) **계와 아이들**(은지/8.5×15cm/1950년경) 한국 전쟁 당시 부산 피란 시절 회화 재료가 없어 담뱃갑의 은지에 철필로 새겨 그린 그림이다. 헤어진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 **덕수궁 석조전**(석재/1910년 완공)



현대 경계를 넘어 세계적인 미술로

20세기 후반 한국의 현대 미술은 지속적으로 도약하며 국제적 위상을 높여 왔다. 다양한 형식 실험이 두드러진 1960~1970년대에는 비정형의 추상 회화와 새로운 전통 회화, 실험적인 행위 미술과 순수한 추상 조각을 전개하였다. 1980년대 사회 참여적인 민중 미술에 이어 1990년대 이후 다원성을 강조하는 포스트모더니즘 미술이 확산되어 다양한 정체성을 탐구하는 한편 현대의 과학 기술과 뉴 미디어를 사용한 새로운 형식의 미술이 펼쳐지고 있다.



▲ 이불(한국/1964~) 사이보그 W1(실리콘, 폴리우레탄 충전재, 피그먼트/185×56×58cm/199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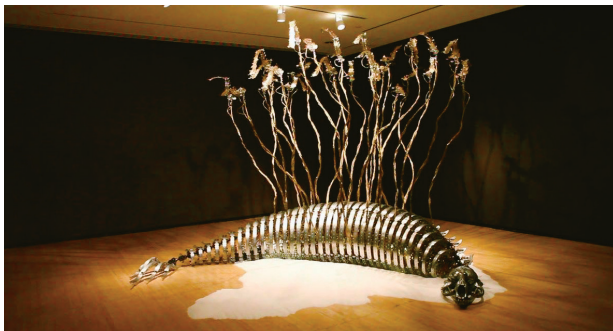


▲ 최우람(한국/1970~) 쿠스토스 카뭇(금속, 전자 기계 장치/220.2×360.2×150.1cm/2012년) 바다사자 형상의 기계가 조용히 숨을 쉬도록 만든 작품이다.



◀ 김중영 (한국/1915~1982)
작품 79-15 (들/48×31×14cm/1979년)

◀ 이승택 (한국/1932~)
바람-민속놀이 (천, 행위/197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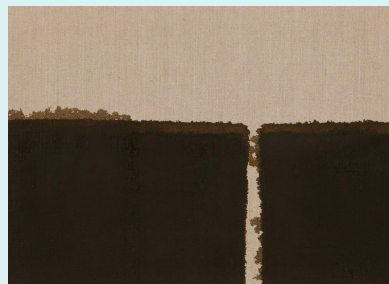
▲ 오윤(한국/1946~1986) 피로(종이에 목판/24.1×34cm/198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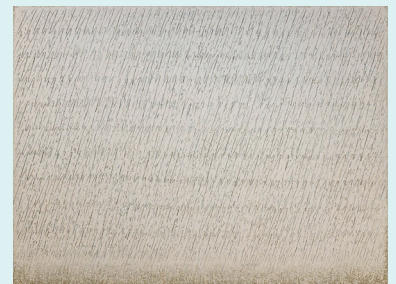
▲ 백남준(한국→미국/1932~2006) 다다익선(비디오 모니터, 1003개/높이 18.5m/1988년)

알고 가기 한국의 '단색화'는 무엇이 특별한가?

단색화란 다양한 색채나 구상적인 묘사를 배제하고 한 가지 색 또는 비슷한 톤의 색만을 사용하여 추상적인 화면을 구성한 회화를 가리킨다. 서양의 '모노크롬 페인팅'에 해당하지만, 2000년 광주 비엔날레 이후 한국의 단색화는 영어로 'Dansaekhwa'라고 표기한다. 이는 한국의 단색 추상화가 자체의 고유한 특성을 담고 있어 '모노크롬 페인팅'이라는 명칭 대신 한국어 그대로 불러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 단색화는 서양 회화와 구별되는 물아일체 정신과 여백의 아름다움이 돋보인다. 박서보, 윤형근, 정상화, 하종현 등 한국 단색화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 윤형근(한국/1928~2007) 청다색(마포 천에 유채/33.5×45.5cm/1998년)



▲ 박서보(한국/1931~2023) 모범 No. 43-78-79-81(마포 천에 유채, 연필/193.5×259.5cm/1981년)



- 한국 미술의 시대적·사회적 맥락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가?
- 한국 미술 작품의 내용과 형식을 미술 용어와 지식을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는가?
- 한국 미술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발견하고 공동체 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가?

실한 오라기, 먼지 한 톨도
자연, 우주와 같은 삼라만상의
하나요, 작품의 중요한
언어이다.
-이응노-